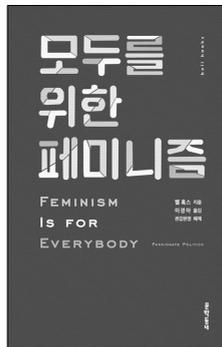


서평

『모두를 위한 페미니즘』을 읽고 『모두를 위한 페미니즘』(문학동네, 2017)

이연주*



페미니즘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만연한 한국 사회에서 페미니즘을 받아들인 여성들은 주로 남성 중심적인 사회와 한국 남성으로부터 부당함을 겪은 경우가 많다. 한국 여성이라면 성희롱, 외모 평가는 물론이고 된장녀, 김치녀 등 온갖 비하적인 용어로 낙인찍힌 경험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성은 가부장제와 성차별주의의 피해자이지만 계급이나 장애 여부, 성 지향성, 경제력, 외모, 학력 등의 측면에서는 기득권의 위치에 처하기도 하고, 같은 여성보다도 더 약자가 되기도 한다. 이처럼 각자의 정체성이 여성 하나뿐인 것이 아니고 서로 다른 상황과 입장을 갖고 있어 여성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부딪히거나 약자를

* 이화여대 지리교육과 학사과정(duswn0703@naver.com)

억압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 관심을 갖던 차에 페미니즘 지리학 강의를 들으면서 위치성과 교차성이라는 개념에 주목하게 되었다. 젠더 이분법을 흔들고 페미니즘의 다원화를 가져온 제3물결 페미니즘에 대해 더 알고 싶어서 흑인 페미니스트인 벨 훅스(Bell Hooks)의 책 『모두를 위한 페미니즘』을 선정했다.

제목부터 ‘모두를 위한 페미니즘’이라고 명시하고 있는 이 책은 명료하고 간결하고 쉽게 읽히는 페미니즘 입문서로 소개되고 있어서 모든 사람이 술술 읽기 편한 책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 책은 페미니즘에 무지한 자에게도 쉽게 와 닿는 일상적인 사례보다는 급진적 페미니즘, 개혁적 페미니즘과 같은 학술적 용어를 통해 페미니즘이 어떻게 탄생하고 발전했는지 소개하고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발생한 페미니즘에 대한 오해와 시행착오, 페미니즘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어 페미니즘에 대한 관심이 없다면 흥미롭게 읽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정치, 계급, 노동, 외모, 인종, 가부장제 폭력, 성 정치 등 페미니즘의 광범위한 주제를 한 권에 정리하여 소개하고 있다. 또한 인종, 계급, 경제적 지위, 성별에서 어떤 위치에 처하고 있는지에 상관없이 페미니즘은 모두를 위한 것이라는 메시지를 뚜렷하게 내비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책은 특정 집단이 아닌 모두를 위한 페미니즘 도서라고 할 수 있다.

벨 훅스는 페미니즘을 “성차별주의와 그에 근거한 착취와 억압을 끝내려는 운동”이라고 정의했다. 남성을 적으로 돌리지 않고 성차별주의를 공고히 하는 주체가 여성이 될 수도 있음을 짚어내며 페미니즘에 있어 여성, 남성이라는 성별 구분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한다. 그에 따르면 페미니스트는 태어나면서부터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성차별주의를 직시하고 반대하는 꾸준한 의식화를 통해 만들어지는 것이다. 성차별주의적인 사고를 버리지 못한 채 페미니즘 운동에 잠입하고 다른 여성을 지배하기 위해 계급이나 인종적 특권을 이용한다면 자매애는 실현될 수 없다. 한편 한국 인터넷에서는 “남성중심주의나 젠더

차별에 관심을 갖고 분노하면 누구나 페미니스트가 될 수 있다”, “페미니스트라고 해서 완전무결할 수 없으니 자기 검열에 얽매이지 말자”는 의견이 많은데 이는 벨 훅스가 비판한 라이프스타일 페미니즘과 맥락을 같이 한다. 실제로 페미니스트를 자처하며 다른 여성의 사회적 지위나 외모를 평가하거나 퀴어 혐오 발언을 하고도 본인이 여성 인권만 안고 가는 래디컬 페미니스트이기 때문이라며 합리화하는 모습을 본적이 있다. 이는 진정한 래디컬 페미니스트라고 할 수 없으며 이를 경계하기 위해서는 내면화된 성차별주의도 외면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페미니즘 내부에서의 비판도 필요하다는 벨 훅스의 말에 동의한다. 그럼에도 일상 속의 남성중심주의에 분노하면서 페미니즘을 접하는 사람, 즉 라이프스타일 페미니즘으로 시작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들을 배제하기보다는 내면의 성차별주의를 직시하는 의식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한국 페미니즘 운동 내에서 논의하는 것이 중요해보인다.

이처럼 주류였던 백인 중산층 위주 페미니즘이나 라이프스타일 페미니즘의 모순을 벨 훅스를 비롯한 흑인 페미니스트, 또는 노동자 계급, 퀴어 페미니스트들이 비판함으로써 페미니즘은 모두를 위한 페미니즘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 즉, 페미니즘의 다원화가 이루어진 것이다. 서구 백인 여성이라는 특수한 위치성만으로는 여성이 당면한 억압의 경험을 포괄할 수 없으며 여성은 개인마다 상이한 시공간적 맥락 속에 위치하기 때문에 같은 페미니즘 이슈라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특권 계급 여성들이 전업주부로 가정에 속박되는 문제를 여성 전체의 위기로 여겼지만 수많은 노동자 계급 여성들은 저임금에 장시간 노동을 하면서도 집안일을 도맡았기에 전업주부가 오히려 ‘해방’처럼 보였을 것이다”(99쪽), “일상적으로 아이들에게 가해지는 폭력의 주범이 주 양육자 여성인 경우가 많다”(175쪽) 등 남성이 가해자이고 여성이 피해자라는 젠더 이분법적 사고로는 성차별주의를 제대로 비판하고 성찰할 수 없다. 실제로 집에서 살림을 하기도

다는 직장에서 사회생활을 하고 싶어서 돈을 충분히 번다면 가사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지 않을까 가볍게 생각해본 적이 있었다. 또한 가사 노동자에 대한 고정관념으로 ‘중년 여성인 도우미 아주머니’의 이미지를 떠올렸다. 여성으로서 공적 공간에 진출하는 것을 동경하면서 사적 공간의 빈자리에는 또 다른 여성을 채우고자 했던 것이다. 그런데 1990년대에 들어서 특권 계급 여성들이 자신의 자유를 위해 빈곤층과 노동자 계급 여성들의 중속 상태를 유지하는, 즉 기존 사회구조와 결탁한 대가로 여성해방을 얻었다는 비판을 보고 반성하게 되었다. 사회생활을 위해 가사 노동자를 따로 고용하고자 하는 생각은 직장과 가정, 즉 공적 공간과 사적 공간의 이분법적 구분에서 기인하며 사적 공간에서 수행되는 가사 노동의 가치보다 공적 공간에서의 노동의 가치를 우월하게 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공간의 이분법을 해체하는 페미니즘 지리학의 목적과 달리 공적 공간과 사적 공간의 구분을 강화해 상대적으로 사회경제적 맥락에서 더 약한 위치성을 가진 여성을 억압하고 사적 공간에 가두려는 오만이었다.

다만 페미니즘이 남성혐오적이라는 대중의 오해를 풀기 위해서였는지, 페미니즘 내부에서의 비판을 통한 성장을 강조하고 싶어서였는지 벨 훅스는 남성보다 백인 중산층 페미니스트에게 더 엄격해 보인다. 그는 “인종에 관계없이 특권 계급 여성이 가정 밖에서 일할 수 없었던 것은 젠더차별이나 성차별주의적 억압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구할 만한 일이 노동자 계급 여성들에게도 문이 열려 있는, 특별한 기술이 필요 없는 저임금 직종이어서였다”(99쪽)라고 말하며 고학력자 엘리트 여성들은 노동자계급 여성들과 같은 일을 하느니 전업주부를 택했다고 말한다. 그러나 고학력자 엘리트라는 높은 스펙을 가지고도 저임금 직종밖에 구할 수 없는 사실 자체가 젠더차별이나 성차별주의적 억압 때문이 아닌가? 백인 여성들이 그들이 가진 인종, 계급 특권을 포기하고 싶어 하지 않고 노동자 계급 여성들의 고통을 외면한 것은 비판할만한 점이다. 하지만 엘리트 여성마저도 저임금 직종이나 전업

주부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성차별주의적인 남성들이 노동 공간의 젠더화를 고착시켰기 때문이다. 또한 가정 폭력의 주범이 주 양육자인 여성인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직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부분의 주 양육자가 여성인 것도 남성이 가정이라는 사적 영역을 자신과 분리시켜 육아를 여성에게만 떠넘겼기 때문임을 간과할 수 없다.

한국의 상황과 달라 비교되는 부분도 있었다. 임신선택권을 다루는 장에서 벨 훅스는 전반적인 임신선택권보다 임신중단권을 강조하는 것은 백인 페미니스트들의 계급적 편견에 의한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임신중단이 불법이기에 상대 남성이 여성의 낙태 사실을 신고하겠다고 협박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은 경우는 임신중단권을 강조하는 여성들은 계급적 편견으로 임신선택권 전반을 무시한 것이 아닌, 임신중단 합법화가 더 절실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저자는 미국 대다수 남성들이 자기 정체성이 본질적으로 잘못되었다고 느끼며 가부장제에 매달린다고 해도 그것이 문제의 일부라는 사실을 감지하기 시작하고 있다고 말한다(168쪽). 그러나 한국 남성들은 가부장제를 끊임없이 재생산하는 군대가 문제의 일부라는 사실을 감지하기보다는 오히려 여성들이 권리를 주장하려면 군대부터 갔다 오라는 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작년에 여성 징병제를 주장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쇄도했다.

한국의 상황과 다르더라도 『모두를 위한 페미니즘』은 젠더 이분법에서 벗어나 우리 안의 차이를 인정하고 페미니즘 내부의 모순을 비판하며 성장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2015년 메갈리아를 기점으로 많은 여성들이 여성혐오의 실태를 깨닫고 페미니즘이라는 ‘빨간약’을 먹었다. 이후 김치녀라는 말을 듣고도 남성이 원하는 여성상에 맞추려고 하기보다는 이에 맞서 ‘한남충’이라고 대응할 수 있는 언어를 갖게 되었다. 이외에도 남성들이 해왔던 여성혐오를 미러링하며 여성들은 통쾌함을 느끼기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페미니즘에 관심을 갖도록 했다. 하지만 여전히 한국 남자들은 뷔페미니즘, 메돼지라며

페미니즘을 조롱하고 있다. 게다가 왜곡된 이미지에 휩쓸려 페미니즘에 거부감을 느끼는 여자들도 많고 페미니즘 내부에서도 경제적 지위, 외모 특권을 버리지 못하는 모순이 발생하기도 한다. 미러링을 통해 효과적으로 남성의 조롱에 대응하고 페미니즘을 이슈화했으니 이제 페미니즘에 대해 제대로 알리고 페미니즘 내부에 모순이 있다면 비판하고 성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인터넷 공간을 넘어 ‘강남역 추모운동’, ‘촛불집회 페미존’과 같이 실제 공간을 점유하여 페미니즘 문제 의식을 공유하게 되었기에 이러한 논의가 활발해질 것을 기대한다. 페미니즘은 모두를 위한 것이다.